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서미정¹⁾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자녀수 및 모 연령이 적을수록 ‘낳지 않겠다’는 응답율은 낮은 반면, ‘낳겠다’와 ‘모르겠다’는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다. 둘째, 자녀수 및 모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모의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후속 출산에 대한 무계획집단에 비해 계획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후속 출산에 대한 계획집단과 미결정집단을 구분하는 데에는 자녀수, 모 연령, 모 학력, 모 우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자녀출산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자녀수가 1명이거나 연령이 30세 미만인 여성은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교육비용과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향후 출산장려 정책에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저출산, 출산계획, 심리사회적 특성, 출산장려정책

I. 서론

최근 몇십년동안 지속되는 한국사회의 출산력 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오면서,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의 선결과제로 부각되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의 관심이

* 본 연구는 2010년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연구교수

높아졌다. 출산 관련 연구들 가운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검토는 출산장려정책을 입안하는데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출산력의 지표는 출산율, 실제 출산여부, 자녀수와 같은 출산행위의 결과(유계숙, 2009; 이미란, 2010; 이인숙, 2005)뿐 아니라 출산의도, 출산희망, 출산계획 등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하는 다양한 개념이 활용되어왔다(김정석, 2007; 박현주, 2006; 서문희, 2010; 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 이정원, 2009; 차승은, 2008). 계획이 반드시 실제 행위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출산계획은 출산행위를 전망하는 데 유용한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Mitchell & Gray, 2007). 특히 출산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까지 포함하는 완결출산율보다 출산계획이 더욱 적합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정원, 2009).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첫 출산과 그 이후 출산은 행위의 선택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관점이 있다(김정석, 2007; 조복희·현온강, 1994). 즉 일반적으로 결혼한 후에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문화적 압력속에서 첫 출산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둘째 자녀부터는 출산에 대한 선택의지가 보다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출산계획을 파악함에 있어 첫 출산과 그 이후 출산을 구분지어 살펴볼 근거에는 선택의지뿐 아니라 출산 및 양육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자녀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유자녀 여성들로 하여금 미혼 또는 무자녀 여성들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출산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 결정요인으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탐색될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의 출산계획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는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김정석, 2007; 신혜원 외, 2009, 가치관 요인(이정원, 2009), 자녀양육비용 및 부모역할인식 요인(차승은, 2008), 보육정책(서문희, 2010) 등에 초점을 두어 따라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현행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부모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후속 출산계획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고려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는 신념에 기초하는(안지영, 2001),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나타

내는 양육실효율로서 주된 양육의 요소이다. 이러한 자녀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기 쉽고(Abidin, 1992), 부모 자신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관련되어 부모로서 적응에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안지영, 2001). 부모신념의 한 요소인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양육행동 자체보다 아동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Goodnow, 1988), 부모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현은강, 1993). 이와 같이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자녀기대 등은 양육 특성이 반영된 요인으로서 부모역할과 관련되므로, 유자녀 여성이 양육자로서 부모역할의 경험을 확장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하는데 관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특히 취업모일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Taylor & Spencer, 1989),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정순,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력있는 아버지의 특성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산후 우울은 산모의 약 50~70%가 경험할 정도로 출산한 여성들에게 보편적 현상이며(이정균, 1990), 산모의 10~15%는 1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이승희·전성일·김영이 외, 1997). 일반적으로 우울한 여성들은 불안정 애착과 같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며(Cramer, 1993), 감정표현의 부족과 부정적 평가 등으로 인해 갈등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Hammen, 1992). 이처럼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의 우울이 후속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모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긍정적 가족관계 증진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할 때 자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모 연령, 모 취업 등과 같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되므로(김정석, 2007; 신혜원 외, 2009), 이들 요인에 대한 통계적 통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하여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후속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더해줄 뿐 아니라 향후 출산장려정책에 부모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후속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3년간(2008년~2020년)의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층화 2단계 추출방법으로 표집되었다. 1단계²⁾에서는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 의료기관별로 패널 모집기간(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표본은 조사 참여에 동의한 예비표본 2,562 가구 중 실제 본조사에 응한 2,078가구로 확정되었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은 자녀 출산 후 4개월되는 시점에 어머니가 응답하여 측정된 것이다.

가. 후속 출산계획 및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

출산계획은 ‘향후 자녀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의사 및 출산계획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된다(박현주, 2006; Richter, Podhisita, Chamratrithirong, & Soonthornthada, 1994).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계획을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향후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출산계획을 측정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가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더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문항의 보기는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

2) 전국 의료기관 중 2006년도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활용하여, 2006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의 6개 권역별로 층을 나누고, 각 층내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함.

(2005)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비율이 낮은 문항들(예, 주택마련 등) 및 중복되는 의미로 판단되는 보기(예, ‘자녀양육비용’ 및 ‘자녀교육비용’과 중복되는 ‘소득이 적어서’는 제외)는 제외하고 자녀양육비용, 자녀교육비용, 직장/학업,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등 7개 보기로 구성되었다.

나.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자녀 기대 등의 양육 특성 변인과, 아버지 특성으로 부 양육참여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모의 우울을 포함시켰다.

1) 양육 특성

가) 양육방식

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20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방식 척도(Parental Style Questionnaire: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et al., 1996)의 세가지 영역(사회적 양육유형, 가르치는 양육유형, 한계설정 양육유형) 중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사회적 양육유형’ 관련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 양육에 있어 도구적, 정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총 6문항이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간편형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신생아 부모에게 적합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치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총 10문항이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다) 자녀기대

자녀기대는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과정을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박영애·원효중, 2003). 본 연구의 자녀기대에는 성공, 사회적 지위, 친사회적 역량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원칙도인 NWECC(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로부터 발췌되었으며, 우리 아이는 장래에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등 미래에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발달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원한다(1점)'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4점)'까지 4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총 6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되었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68로 나타났다.

2) 아버지 특성: 부 양육참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희경(1998) 및 홍성래(1995)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조사대상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등의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총 4문항이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3) 어머니 특성: 모 우울

모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보건면접조사에서 일반인 대상의 정신건강 측정을 위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K6'(Kessler, Andrew, Cople et al., 2002)도구가 사용되었다.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불안, 무기력, 슬픔 등 총 6문항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에서 '항상 느낌'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의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인에는 자녀수, 가구소득, 부·모 학력, 모 연령, 모 취업³⁾ 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들 변인은 분석적 필요에 따라 원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범주화하여 사용되었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며, 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조복희·신나리·안재진 외, 2009).

가. 조사방법 및 절차

설문조사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를 위해 병원 방문용 질문지와 가구방문용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3개월간의 병원방문조사를 통해 예비표본을 구축한 후, 대상 아동이 만 4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방문 2주 전 우편조사용 질문지(어머니용, 아버지용 질문지)가 가구로 발송되었다.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 후 조사원이 전화로 질문지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잡아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방문을 강력히 거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어머니용, 면접용 질문지의 주요 문항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거부가구용 질문지를 발송하였고, 조사원 방문수거, 전화 응답, 택배 착불서비스 반송 등 응답자의 선호방식에 따라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가구는 표본의 89.7%(1,864 가구)이며, 방문거절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또는 전화조사를 실시한 가구는 표본의 10.3%(214 가구)이다.

나. 자료처리

가구방문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⁴⁾

3) 취업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와 시간제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없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4) 면접원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피면접자의 응답을 화면에 바로 입력하는 방법임 (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

방식의 설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즉 지필식 설문조사의 질문지를 CAPI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 질문지로 전환하고, 이를 노트북에 탑재하여 면접 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 오류 등을 체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한국아동패널의 예비표본은 2008년 4월~7월중에 태어난 신생아들로 구축되었으나 패널 모집단은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전체이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전체 모집단의 값을 추정한 결과,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도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조복희 외, 2009).

4. 자료분석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점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른 후속 출산계획과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III.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에 나와 있다.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47.3%, 2명은 41.5%, 3명은 9.6%였으며, 4명 이상은 1.3%에 그쳤다. 기대자녀수는 58.4%를 차지한 2명이 가장 높은 응답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명(24.5%), 3명(14.9%)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응답은 2명(58.9%), 3명(31.1%), 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1.5~300만원 이하가 과반수 이상(58.5%)을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은 부, 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38.7%와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모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49.6%가 30~34세였으며, 25~29세는 28.7%, 35~39세는 17.2%, 19~24세와 40세 이상은 소수의 분포를 보였다. 취업모는 전체의

29.4%이고, 69.9%는 미취업 또는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N=2,078)

변인	빈도	%
자녀수(기대자녀수)		
1명	983(510)	47.3(24.5)
2명	862(1,214)	41.5(58.4)
3명	199(310)	9.6(14.9)
4명	23(34)	1.1(1.6)
5명 이상	4(5)	0.2(0.2)
이상자녀수		
무자녀	12	0.7
1명	42	2.3
2명	1,075	58.9
3명	568	31.1
4명	121	6.6
5명 이상	6	0.3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42	2.0
101.5~300만원 이하	1,216	58.5
300.5~500만원 이하	651	31.3
500.5만원 이상	156	7.5
부(모) 학력		
고등학교이하	569(643)	27.4(30.9)
전문대(기능대 학)	420(590)	20.2(28.4)
대 학교	804(714)	38.7(34.4)
대 학원이상	200(115)	9.6(5.5)
모 연령		
19~24세	55	2.6
25~29세	597	28.7
30~34세	1,031	49.6
35~39세	357	17.2
40~46세	37	1.8
모 취업/학업		
취업 중	611	29.4
학업 중	14	0.7
미취업/미취학	1,453	69.9

주. 변인들의 백분율 총합이 100이 아닌 것은 무응답 및 결측치 때문임. 기대자녀수는 현재 자녀 수에 후속 출산계획 자녀수를 합한 것임.

2.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

가. 후속 출산계획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통제변인인 자녀수, 가구소득, 부·모 학력, 모 연령 및 모 취업에 따라 후속 출산계획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른 후속 출산계획의 응답 빈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자녀 출산한지 4개월된 여성의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낳겠다’, ‘낳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전체의 27.8%, 50.4%, 21.7%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먼저 자녀수에 따른 후속 출산계획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여성의 52.9%가 ‘낳겠다’에 응답하였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6.5%를 차지하였다. 자녀수가 2명일 때, 77.9%의 여성들이 ‘낳지 않겠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낳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하였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대다수가 ‘낳지 않겠다’에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94.2%). 한편 1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30.6%, 2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16.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모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여성의 47.7%, 30~34세 여성의 22.1%, 그리고 35세 이상의 9.9%가 ‘낳겠다’에 응답하였다. 19~29세, 30~34세, 35세 이상 여성의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각각 26.1%, 55.5%, 77.4%를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6.2%, 22.4%, 12.7%를 보여주었다. 즉 모 연령이 낮을수록 후속 출산에 대해 ‘낳겠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높은 반면, ‘낳지 않겠다’는 응답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른 후속 출산계획의 응답 빈도

구분	후속 출산계획 n(%)			총합	χ^2
	낳겠다	낳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자녀수					
1명	520(52.9)	162(16.5)	301(30.6)	983(100)	944.87*** (df=4)
2명	51(5.9)	668(77.9)	139(16.2)	858(100)	
3명 이상	3(1.3)	213(94.2)	10(4.4)	226(100)	
모 연령					
19~29세	311(47.7)	170(26.1)	171(26.2)	652(100)	310.23*** (df=4)
30~34세	227(22.1)	571(55.5)	230(22.4)	1,028(100)	
35세 이상	39(9.9)	305(77.4)	50(12.7)	394(100)	
전체	577(27.8)	1,046(50.4)	451(21.7)	2,074(100)	

주. 전체 조사대상자(N=2,078) 중 무응답 및 결측치 사례 제외됨.

*** $p<.001$.

나. 변인들간 상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간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가구 소득	부 학력	모 학력	모 연령	모 취업	양육 방식	양육 스트 레스	자녀 기대	부 양육 참여	모 우울
후속 출산 계획	1.00											
자녀 수	-.64***	1.00										
가구 소득	-.05	.03	1.00									
부 학력	-.06*	-.02	.29***	1.00								
모 학력	.01	-.11***	.29***	.55***	1.00							
모 연령	-.40***	.38***	.14***	.12***	.08***	1.00						
모 취업	.03	-.08***	.43***	.20***	.26***	.02	1.00					
양육 방식	.13***	-.17***	.01	.04	.10***	.01	-.08**	1.00				
양육 스트 레스	-.19***	.11***	-.08**	-.08**	-.10***	-.02	-.06*	-.41***	1.00			
자녀 기대	-.01	.03	.06*	.06*	.06**	.03	.03	.13***	.01	1.00		
부 양육 참여	.16***	-.14***	.07**	.14***	.11***	.01	.08***	.23***	-.26***	.05*	1.00	
모 우울	-.10***	-.03	-.07**	-.05	-.06**	-.04	-.06**	-.27***	.52***	.01	-.20***	1.00

주. 후속 출산계획(낳겠다: 1, 낳지 않겠다: 0)과 모 취업(취업: 1, 학업과 미취업: 0)은 더미변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3>을 보면, 후속 출산계획은 자녀수, 부 학력, 모 연령, 양육스트레스 및 모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양육방식 및 부 양육참여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많을수록, 그리고 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과 더욱 관련되며,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을 하겠다는 계획과 더욱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들간 상관계수는 .05~.52의 범위에 있다. 양육방식은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자녀기대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양육방식 및 부 양육참여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게 지각하고, 양육방식은 덜 긍정적이며,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 양육참여는 양육방식 및 자녀기대와는 정적 상관을,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양육방식은 더욱 긍정적이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은 반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후속 출산계획

유자녀 여성들이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낳겠다’, ‘낳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각각 계획집단, 무계획집단, 미결정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획집단을 무계획집단 및 미결정집단과 각각 비교하는 방식으로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자녀기대, 부 양육참여, 모 우울 가운데 후속 출산계획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한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외에도 자녀수, 가구소득, 부·모 학력, 모 연령, 모 취업 등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무계획집단과 계획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은 자녀기대, 부 양육참여, 모 우울로 나타났다. 즉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녀의 사회적 역량, 성공 등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클수록,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모의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무계획집단에 비해 계획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결정집단과 계획집단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모 우울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 출산 후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여성들은 계획집단에 비해 미결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인	무계획(n=861) 대 계획(n=500)			미결정(n=361) 대 계획(n=500)		
	B ^a	S.E.	Exp(B) ^b	B ^a	S.E.	Exp(B) ^b
상수	8.26	1.37	3860.11	4.66	1.18	105.07
통제변인						
자녀수	-3.58***	.20	.03	-1.50***	.20	.22
가구소득	.01	.16	1.01	.26	.14	1.30
부 학력	-.03	.11	.97	.02	.09	1.02
모 학력	-.21	.11	.81	-.24*	.10	.79
모 연령	-.93***	.12	.39	-.43***	.11	.65
모 취업	.03	.22	1.03	-.02	.19	.99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양육방식	-.06	.03	.95	-.03	.03	.97
양육스트레스	-.03	.02	.97	-.01	.02	.99
자녀기대	.07*	.04	1.07	.01	.03	1.01
부 양육참여	.07*	.03	1.07	.01	.03	1.01
모 우울	-.06*	.03	.94	-.08***	.02	.93
$\chi^2(df)$	924.66(11)***			120.90(11)***		

주: a는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이 계수가 0보다 크면 사건 발생의 확률을 증가시키고, 0보다 작으면 사건 발생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됨(Morgan & Teachman, 1988).

b는 e^B 값으로, odds ratio(OR) 추정치를 의미하며, 설명변인이 1 증가할 때 사건 발생 가능성이 몇 배인가를 나타냄.

* $p < .05$. *** $p < .001$.

통제변인 중 자녀수와 모 연령은 계획집단을 무계획집단 및 미결정집단과 구분하는 공통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한 자녀수가 많을 때, 모의 연령이 높을 때는 후속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계획하거나 출산여부에 대한 중립적인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의 학력은 미결정집단과 계획집단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집단에 비해 미결정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 분석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추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수에 따른 추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그 차이

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125.78$, $df=12$, $p<.001$). 즉 자녀가 1명인 여성의 더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용’(31.4%)이며, 그 다음은 출산 또는 양육에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28.3%)라는 응답이 차지하였다. 자녀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여성 모두 추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이며, 그 다음 높은 응답율은 ‘자녀교육비용’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을 19~29세, 30~34세, 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추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chi^2=151.09$, $df=12$, $p<.001$). 모 연령이 19~29세인 경우, 더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1, 2순위 응답은 각각 ‘자녀교육비용’(35.4%)과 출산과 양육에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과 35세 이상의 여성들이 추가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 ‘자녀교육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출산한지 4개월 정도된 여성이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양육비용’, ‘직장/학업’, ‘개인시간/여가 및 자아성취를 위해서’ 등은 자녀수와 모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른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

구분	자녀 양육 비용	자녀 교육 비용	직장/ 학업	개인 시간/여가, 자아 성취	계획한 수만큼 아이 를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출산, 양육)	n(%) 총합
1명	12 (7.5)	50 (31.4)	8 (5.0)	14 (8.8)	9 (5.7)	21 (13.2)	45 (28.3)	159 (100)
2명	38 (5.9)	209 (32.2)	15 (2.3)	29 (4.5)	239 (36.8)	27 (4.2)	92 (14.2)	649 (100)
3명 이상	8 (3.8)	43 (20.5)	1 (0.5)	6 (2.9)	115 (54.8)	16 (7.6)	21 (10.0)	210 (100)
χ^2	125.78*** (df=12)							
19~29세	12 (7.5)	57 (35.4)	6 (3.7)	10 (6.2)	34 (21.1)	0 (0.0)	42 (26.1)	161 (100)
30~34세	39 (7.0)	182 (32.6)	12 (2.1)	31 (5.5)	211 (37.7)	9 (1.6)	75 (13.4)	559 (100)
35세이상	7 (2.3)	64 (21.3)	6 (2.0)	8 (2.7)	118 (39.3)	56 (18.7)	41 (13.7)	300 (100)
χ^2	151.09*** (df=12)							
전체	58 (5.7)	303 (29.7)	24 (2.4)	49 (4.8)	363 (35.6)	65 (6.4)	158 (15.5)	1,020 (100)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대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 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출산계획은 자녀수 및 모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적거나 모 연령이 낮을수록 ‘낳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낮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전체 유자녀 여성의 21.7%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고, ‘낳겠다’는 응답 분포와 유사하게 자녀수가 적을수록, 모 연령이 낮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답율이 높다는 점이다. 즉 소자녀를 두어 추가 자녀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출산에 대한 생물학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낮은 연령의 어머니들이 후속 출산에 대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자녀 출산 후 4개월된 어머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기의 특성이 후속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후속 출산계획에 대해 무계획집단과 비교하여 계획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은 자녀수, 모 연령, 자녀기대, 부 양육참여 및 모 우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결정집단과 비교하여 계획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데는 자녀수, 모 연령, 모 학력 및 모 우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미결정집단과 계획집단의 구분에 비해 무계획집단과 계획집단을 구분하는 데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역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속 출산의 무계획과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결정과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모 우울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차별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결정집단이 계획집단의 응답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함께 후속 출산여부에 대한 미결정집단은 잠재적으로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가운데 모 우울은 계획집단을 무계획집단 및 미결정집단과 각각 구분하는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우울이 향후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음 출산여부를 당분간이라도 보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황수경, 2002), 본 연구의 시점인 자녀 출산 후 4개월은 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높은 자녀기대는 무게집단에 비해 계획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공, 친사회적 역량, 행복한 가정 등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반영되는 인지적 요소로서(Goodnow, 1988), 후속 출산을 계획할 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무게집단과 비교해서 계획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로 인해 가족내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이숙희·고인숙·최향숙, 2003), 여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20대와 40대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한 것에 비해 30대 여성의 고용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보고(아시아경제, 2010. 8. 18)는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양육부담이 부모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실제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출산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인 가운데 자녀수와 모 연령은 계획집단을 무게집단 및 미결정집단과 각각 구분하는 데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후속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정석, 2007), 현재 자녀수는 후속 출산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높은 연령이 생식능력의 절대적 저하와 출산의 위험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추가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가 1명이거나 모 연령이 29세 이하일 때 자녀교육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있어 육체적으로 힘든 이유가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자녀수가 1명이거나 30세 미만의 여성들이 추가 자녀를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행 정책과 함께 심리사회적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녀수가 2명 이상이거나 모 연령이 30세 이상의 유자녀 여성이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아서, 자녀교육비용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여주었다.

자녀수와 모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교육비용은 유자녀 여성이 추가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에 있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이인숙, 2005)와 일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을 결정하는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규명하고, 추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 과제에 시사점을 제공한 점이다. 먼저 향후 출산장려정책은 기존 정책에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대책이 더해져야겠다. 현행 출산장려정책은 보육비 지원,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출산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서문희, 2010, 유계숙, 2009; Castles, 2003).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등과 같은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유자녀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측면들이 정책에 고려되지 않고서는 정책의 효과가 출산을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부성휴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이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의 부성휴가이며, 여자는 3년, 남자는 1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그 이용율이 10%에 못 미칠 정도로 낮다(MBC 뉴스, 2011. 5. 23).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높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할당제의 이용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부성휴가를 쓰도록 지원하는 정책에서 한국과 차별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어머니가 쓸 수 있는 출산휴가 43주 중에서 출산전후 14주를 뺀 나머지는 아버지와 나눠쓸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아버지에게 3주의 부성휴가를 주고, 최소 2주 이상 부성휴가를 쓰면 2주를 더 주는 보너스 휴가제도도 있다. 일본에서도 일하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육아휴직제도의 취득 지원을 위해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이쿠(育) 맨(man)’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이쿠(育) 맨(man) project’를 발족시켜 남성이 자신의 육아경험을 소개하거나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주간 복지신문, 2010. 6. 28). 이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한 아버지 할당제의 실제 이용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서도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성휴가를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된 휴직급여를 지불하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러한 정책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양성평등한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의식 확산과 병행될 때 장기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정책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가족가치관 및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은 단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강화에만 의존했다면 부모교육에도 포함시켜 성인기까지 확장된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기대와는 정적 상관을, 모의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이와 관련한 의식 확산에 대한 노력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여 긍정적인 양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모의 우울 감소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여성이 추가 출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 자녀교육비용과 관련한 정부정책으로 양육비 및 교육비 경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게다가 2011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에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0~4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지원정책으로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고교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장기간 시행되므로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양육부담이 비교적 큰 생후 4개월 정도된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 출산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출산에 대한 의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자녀 가구의 다양한 표본을 포함시켜 자녀 출산시점에 따른 후속 출산계획 결정요인을 규명한다면 출산장려정책에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계획이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지는 데 관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단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출산하지 않는 이유뿐 아니라 출산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인 의사결정 이유도 파악된다면 잠재적 출산 가능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정석(2007). 기혼 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박영애·원효종(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 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713-735.
- 박현주(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서문희(2010).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4(2), 76-95.
- 신혜원·최명섭·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 아시아경제 2010. 8. 18. **여성 2명 중 1명 고용..출산·육아 경력단절은 여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813274583092>.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숙희·고인숙·최향숙(2003).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휘·전성일·김영이·이정호·최영민·이기철(1997). 출산후 여성의 우울성향과 영아 기질, 양육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37(1), 95-103.
- 이은혜·이미리·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정균(1990).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

동학회지, 24(3), 97-106.

이정원(2009).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분석-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조복희·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4), 135-147.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주간 복지신문 2010. 6. 28. 남성의 육아참가를 지원 - 후생노동성이 「이쿠(育)man」 project -. <http://www.kicce.re.kr>.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

현온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MBC 뉴스 2011. 5. 23.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민간기업도 탄력.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854204_5782.html.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Bornstein, M. H., Tamis-LeMonda, C.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19(2), 347-367.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in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 283-297.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itchell, D. & Gray, E. (2007). Declining fertility: Intentions, attitudes and aspirations. *Journal of Sociology*, 43(1), 23-44.
- Morgan, S. P., & Teachman, J. D. (1988). Logistic regression: Description, examples, and compari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29-936.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8: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Saitama, Japan: Author.
- Richter, K., Podhisita, C., Chamratrithirong, A., & Soonthorndhada, K.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2.
- Taylor, J. & Spencer, B. (1989). Lifestyle patterns of university women: Implications for family/career decision modeling. In E. Goldsmith(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pp. 265-277). Newbury Park, CA: Sage.

· 논문접수 2011년 3월 29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3일

· 교신저자: 서미정,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연구교수, 이메일 bella2001@pn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Follow-up Planned Childbirth: Focused on Family with Children

Mijung Se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r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ffect follow-up planned childbirth among family with children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llow-up planned childbirth was found significant difference by both the number of children and female age. Seco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father's involvement for parental role, and postpartum depression were all strongly associated with follow-up planned childbirth. Third, the reasons why women with children don't plan a follow-up childbirth was that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followed by caring difficulties among women with one child and under 29 year-old-wom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on birth encouragement policy to increase childbirth.

Key words: low fertility, childbirth pla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birth encouragement policy